

OECD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참가 및 세계포럼 실무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목 차>

1. 요약보고

2. 출장 결과보고

가. 출장 개요

나. 「OECD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개요

다. 세미나 특징 및 주요 내용

라. 주요 발표 사례

마. 주요 시사점

바. 세계포럼 준비 관련 실무협의 결과

참 조. 각 국 및 기관별 데이터시각화 참고 사이트

첨부1. OECD세계포럼 참가자 리스트

첨부2. OECD 사례발표 PPT

첨부3. 네덜란드 사례발표 PPT

1. 요약보고

가. 출장 개요

- 기간 및 장소 : '08. 5. 24~30, 스웨덴 스톡홀름
- 목적 : OECD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참가 및 세계포럼 업무협의
- 출장자 : 강계화(통계지리정보과 사무관), 진유강(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 참가규모 : 42개국, 11개 국제기구 163명 참석

나. 출장 결과(요약)

□ 세미나 특징

- 웹2.0 등 IT 발달로 변화하는 통계정보제공방식에 대한 최신 동향 논의
 - 세계포럼 부대행사인 '선진통계활용전시회'의 준비 회의로 '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sation)'의 각국, 기관별 사례 공유
- 국제기구 및 유럽 주요 선진국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개
 - Gapminder(motion chart), Google Earth를 활용한 통계정보제공서비스 등
 - OECD의 'Wikigender', 스웨덴의 'Geowizard', 네덜란드의 'Google Earth' 등

□ 주요 논의 사항

- 자료제공(Dissemination)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데이터시각화에 있어 지켜야할 원칙과 통계인의 역할
- 데이터시각화로 인한 장단점 및 도전과제
 - 사용자의 수요(needs)에 맞는 서비스 가능하나 자료 '신빙성' 및 '상업적 정보사용'에 대한 경제와 원칙, 그리고 국가 통계기관의 역할 정립 필요

□ 시사점

- 선진국의 통계 서비스에서의 웹2.0기술의 주류화
- 행정구역별 국내통계 또는 국제DB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필요
- 국내 동향 및 유관기관·전문가 발굴을 통한 대응 의제 선정 필요

□ 세계포럼 담당자와의 업무협의 주요 내용

- 협의사항 : 개최일자, 개최장소선정, 준비위원회 구성 등
- 의제 선정 및 발표자에 있어 한국 및 아시아 비중 높여줄 것 요구
- '09년 대륙별 회의 중 아시아포럼의 일본 개최 통보받음

2. 출장 결과보고

가. 출장 개요

□ 출장 기간 및 출장자

- 기간 및 장소 : 2008. 5. 24~30, 스웨덴 스톡홀름
- 출장 목적
 - 'OECD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Seminar on Innovative Approaches to Turning Statistics into Knowledge) 참가 (공동주관: OECD, 스웨덴통계청)
 - 세계포럼 준비에 관한 업무 협의(Jon Hall, 세계포럼프로젝트매니저 외 2명)
- 출장자
 - 강계화 통계정보국 통계지리정보과 사무관
 - 진유강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 출장 기간 내 일정

- 5. 26(월)~27(화) : OECD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참가
- 5. 28(수) : OECD 세계포럼 담당자와 세계포럼 준비 관련 업무협의

나. 「OECD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개요

□ 세미나 개요

- 회의명 : OECD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Seminar on Innovative Approaches to Turning Statistics into Knowledge)
- 일시 및 장소 : '08. 5. 26(월)~27(화), 스웨덴 스톡홀름 Berns호텔
- 주관 : OECD 통계국, 스웨덴 통계청
- 목적 : 통계를 지식으로서 폭넓게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하는 세계포럼의 방향에 따라 최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툴을 개발하고 국제적 동향을 논의하기 위함
- 참가 규모 : 42개국, 11개 국제기구 통계 및 정책 전문가 163명

- 주요 인사

- Enrico Giovannini OECD 통계처장
- Kjell Jansson 스웨덴 통계청장
- Hervé Carré Eurostat 국장
- Hans Rosling Gapminder 창립자

- 참가자 리스트 : 별첨 참조

□ 프로그램 구성

o 1일차 ('08. 5. 26, 월)

프로그램	내 용
환영사	· 연사 : Kjell Jansson(스웨덴 통계청장), Enrico Giovannini(OECD통계처장)
세션 A	· 주제 : 민주주의와 증거기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 (Democracy and Evidence; Policy Questions on How Data and tools can and should be made accessible) - 발표자 : Hans Rosling (스웨덴 Gapminder), Jim Ridgeway (영국 더럼대학교), Patrick Ng (뉴질랜드 통계청), Troy Anderson (영국 Knowledge Plex)
세션 B	· 주제 : 현실 반영 지표들 (Presenting Indicators that Interact with People's mind) - 발표자 : Marc Lachance(캐나다 Council on Learning), Andranik Tangian (독일 Hans Boeckler 재단), Reza Salim(방글라데시 Amarder Gram 프로젝트 대표)
세션 C	· 주제 : 데이터의 시각화 I (Interacting Graphically with Data) - 발표자 : Imad Abugessaisa(스웨덴 린코핑대학교), Laszlo Pinte(캐나다 지속가능개발 연구소), Alan Smith(영국 통계청), Candido Astrologo (필리핀 통계청), Martin Broberg (로이터), Mikael Jern (스웨덴 린코핑대학교), Cesare Furlanello(이태리 FBK)

o 2일차 ('08. 5. 27, 화)

프로그램	내 용
세션 C (계속)	· 주제 : 데이터의 시각화 II(Interacting Graphically with Data) - 발표자 : Gerard Salou(유럽중앙은행), Jan Kaaling (스웨덴 예테보리시), Oliva Ten Bosch(네덜란드 통계청), Heinz-Herbert Noll (독일 Gesis-Zuma), Sara Wood (미국 Swivel), Daniel von Burg (스위스 통계청)
세션 D	· 주제 : 국제기구의 역할 (What ar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Doing?) - 발표자 : Patrick Hinderdael and Desmond Spruijt(IMF), Anneke Schapelhouman(네덜란드 Mapping Worlds), Jens Dosse (OECD)
라운드 테이블	· 주제 : 증거기반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통계 전문가의 역할 - 패널 : Enrico Giovannini, Hans Rosling 등

다. 세미나 특징 및 주요 내용

□ 세미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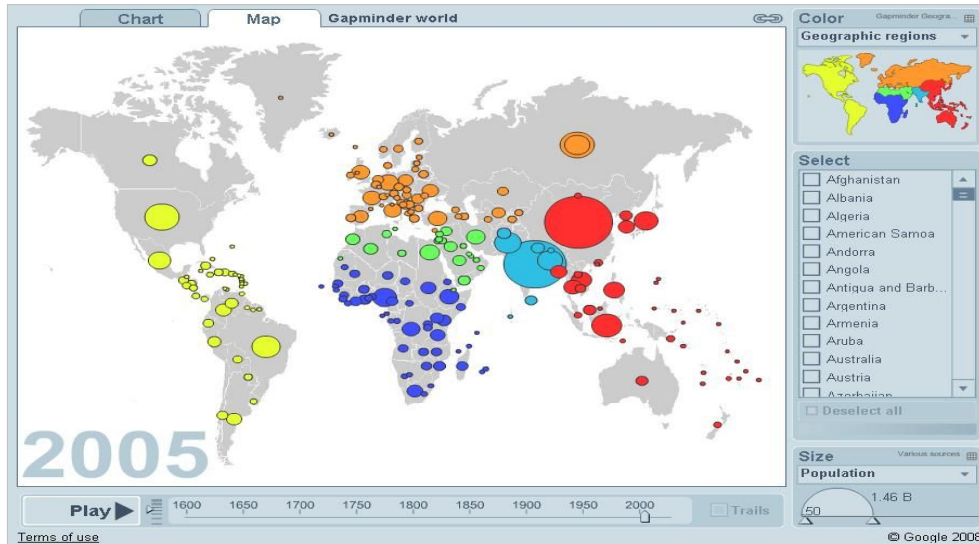
- 웹2.0 등 IT 발달로 변화하는 통계정보제공방식에 대한 최신 동향 논의
 - 세계포럼 부대행사인 '선진통계활용전시회'의 준비 회의로 '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sation)'의 각국, 기관별 사례 공유
- 국제기구 및 유럽 주요 선진국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개
 - Gapminder(motion chart), Google Earth를 활용한 통계정보제공서비스 등
 - OECD의 'Wikigender', 스웨덴의 'Geowizard', 네덜란드의 'Google Earth' 등

□ 세미나 주요 내용

- 패러다임의 변화 : 통계 '**배포(Dissemination)**'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 웹 2.0의 개발로 인터넷 제공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Consumer)'는 프로슈머(생산적소비자, Prosumer)로 진화하여 국가통계 제공 시스템에도 변화를 일으킴
 - OECD는 '생산에서 서비스'라는 기조로 새로운 통계배포 정책 추진. 웹 2.0을 기반으로 한 'Factbook' 출시와 '다이나믹차트', 'Wiki기술' 등 활용
 -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데이터는 '상품(commodity)'이 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됨에 따라 앞으로 일방적인 '배포'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국가통계 생산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작용이 될 것.
- 대표적 애플리케이션 **Gapminder** (www.gapminder.org) 활용
 - 스웨덴 국가보건연구소 Hans Rosling교수에 의해 개발. '움직이는 버블모양의 차트(moving bubble chart 또는 motion chart)'를 개발하여 정보를 지식화 하는 도구로 활용,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들이 도입
 - 데이터시각화 소프트웨어인 'Trendalyzer'를 개발, 사용하여 글로벌 이슈(환경, 에너지, 인구 등)를 애니메이션 자료로 만들어내는 데 활용.

‘Gapcast’를 활용하여 통계를 설명, 지식화 하는 도구로도 활용
(참조. <http://www.gapminder.org/video/gap-cast/gapcast-10---energy.html>)

- 최근 Google과 공동 개발로 사업 확대



<Gapminder의 움직이는 Bubble Chart>

□ 데이터시각화에 있어 도전과제

o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 정확한 목표 고객(Target User)의 설정
- 쉬운 방법의 틀로 학습단계(Learning Curve) 최소화
- 기능성(Functionality)와 유용성(Usability) 간의 균형
- 최신의 정보 제공과 수시 업데이트
- 다양한 형태(format)의 결과물 제공
- ‘데이터테이블’과 ‘시각화툴’ 사이의 연동 극대화
- 메타데이터의 필수적 제공 등

o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통계인의 역할

- 정보기술의 변화로 통계 정보의 생산과 제공 메커니즘 역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나 과연 통계인들이 ‘이야기해주기(storytelling)’

까지 맡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남아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 필요

- 통계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Google 등과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통계정보제공이 '상업적' 성격을 띠기 시작. 이에 대해 통계 정보의 '신빙성' 확보 및 기업체의 '상업적 정보사용'에 대한 경계와 원칙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과거의 단순한 생산물(output)으로서의 통계가 아닌 결과물(outcome)으로서의 통계를 생산해야 할 시대로 통계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 필요

라. 주요 발표 사례

□ 뉴질랜드 정부의 '정보무료이용서비스(MIFA)' 사업

- o MIFA : Making more Information Freely Available Initiative
- o 뉴질랜드 내 중소기업들의 통계 활용을 높여 경쟁력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계청 제공 데이터를 '시각화(Visualisation)'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
- o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계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중

□ 스웨덴의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VDM)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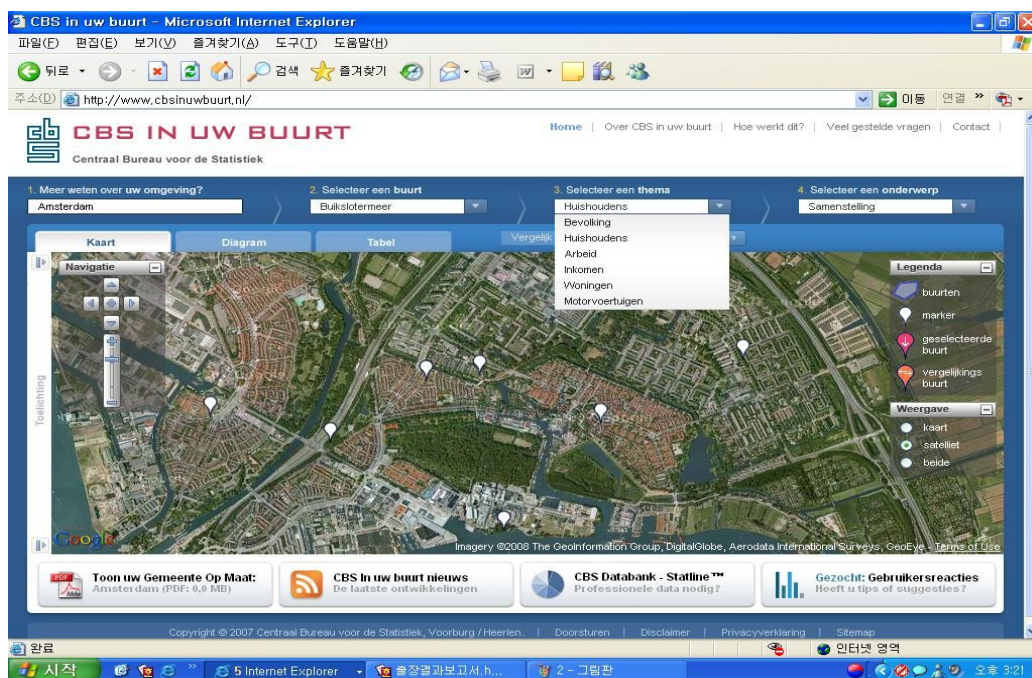
- o 자동 시각 데이터마이닝(Automatic and Visual Data Mining, VDM)을 모색
- o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 : VTM 패러다임, 탐색적 자료분석과 K-means algorithms, hierarchical agglomerative clustering (HAC), classification trees, and self-organized-maps (SOM)

□ 영국 통계청의 ‘데이터시각센터(Centre for Data Visualisation)’

- 동 기관의 미션인 ‘삶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 효율적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함
- 설립 당시, 동 센터를 어떤 국에 뒤야 할지 논의 많았음. 정보국, 커뮤니케이션국 등이 거론되었지만 통계기법(Statistical Methodology)국 산하에 둠
- 웹2.0을 기반으로 한 ‘개인인플레이션차트(Personal Inflation Chart)’를 출시하여 획기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내부적인 의견은 여전히 분분. 숫자가 아닌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남아있음
- 개발 사례 : 2001 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통근패턴분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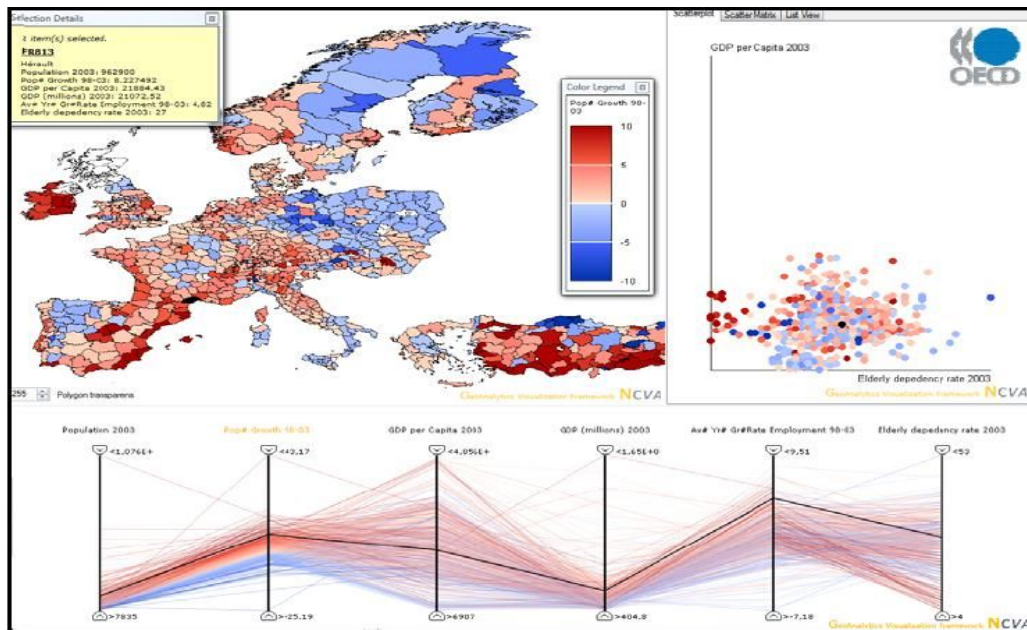
□ 네덜란드 통계청 구글 인프라 기반 통계정보 서비스

- 구글맵의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통계정보를 웹상에서 구글맵에 오버레이한 메시업 서비스, 구글어스의 메시업 서비스는 KML을 이용하여 폴리곤 등의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표현을 위한 색깔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스웨덴의 지리 시각적 분석(Geovisual Analytics)

- o Geovisual Analytics은 사회, 환경, 에너지, 물류 등을 포함 경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도입, 활용
- o 공간적 차원을 포함하여 다변량 특성 및 시계열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GAV'라는 툴 장치를 제공하며 'Geo Wizard'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제공
- o Geovisual Analytics은 스냅샷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합된 탐색적 자료 분석 및 전달(Integrated Explorative Data Analysis and Communication)로 연구, 교육, 산업 및 정부기관에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마. 주요 시사점

□ 우리 청 GIS 사업 및 서비스 고도화 관련

o 선진국의 통계 서비스에서의 웹2.0기술의 주류화

- 동 세미나 참가 각국은 웹2.0을 기반으로 한 비주얼 통계 정보 제

공방안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웹2.0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서비스의 필수 사항으로 인식됨

- IT 기술과 혁명적인 지리적 자료의 사용 등을 비롯, 핸드폰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탐색 기능 등이 주류로 등장하는 등 패러다임 변환 중
- 따라서, OECD 세계포럼을 유치하는 우리 청의 입장에서 통계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차별화·선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고려되어야 할 것. (이는 담당자 개인의 소견으로 국 의견과는 무관)

o 행정구역별 국내통계 또는 국제DB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필요

- TGM(Tables-Graphs-Maps) 서비스
 - 시계열 데이터의 동적 또는 애니메이션 차트 개발
 - Boundary지도(Shape File)의 고급화된 비주얼화(예 : SVG 포맷 등)
- * 이에 대해서는 ① 행정구역별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② OECD가 제공하는 개발 툴킷을 사용하여 국제DB의 비주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o 구글맵, 구글어스 기반의 국내 통계정보 서비스

- 08년 Open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 저작기능 제공(GE의 Open API와 동일한 개념)
 - 통계분석 결과를 KML로 추출하는 기능 제공 개발 예정('08년)
- * 따라서, 통계내비게이터는 '08년 고도화작업을 통하여 GE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시 자료데이터로부터 다양한 통계항목을 쿼리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계포럼 의제 관련

○ 관련 주제에 대한 국내 이슈 및 전문가 발굴

- 동 세미나의 아젠다는 제3차 포럼에서 1~2개의 본 포럼 세션으로 구성되어 통계의 '대중화'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보다 쉽게 보여지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에 맞춰 논의될 예정. 과거의 '보도자료' 배포 형식의 자료제공을 뛰어넘은 다양한 방식의 사례 발굴이 각 국 또는 기관별로 진전될 예정
- 따라서 관련 국내 이슈를 파악하여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개발 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국내 대응 의제를 선정할 필요 있음.
- 특히, 동 세미나에서는 주로 '유럽' 중심의 기관 및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었으며 각종 틀의 공식 언어도 '영어'로 사용되는 등, 기술과 언어에 있어 아시아 및 비영어권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의제 개발이 필요

바. 세계포럼 준비 관련 OECD 담당자 실무협의 결과

□ 실무협의 개요

- 일자 및 장소 : '08. 5. 28 (수), 스웨덴 스톡홀름 Berns Hotel
 - ※ OECD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08. 5. 24-30) 참석 기간 중 실시
- 참석자
 - OECD 세계포럼팀 : Jon Hall(Project Manager), Lynda Hawe(Webmaster and ICT Advisor), Babara Iasiello(Research Assistant)
 - 통계청 : 강계화 사무관, 진유강 주무관
- 주요 이슈 : 제3차 OECD세계포럼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협력사항

□ 협의 결과

○ 개최 일자 및 장소

- 동 이슈에 대해서는 OECD측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
- 개최 일자는 OECD측의 의견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09. 10. 27(화)~30(금)로 확정하였음을 OECD측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OECD측은 무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바로 통계처장 및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함. 특히, 주요 인사 (UN, OECD, EU, EUROSTAT, WORLDBANK 대표 등)들의 일정 조정이 시급한 만큼 바로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함.

※ '08. 5. 26일자로 Enrico Giovannini OECD통계처장은 통계위원회 회원들에게 동 날짜가 포함된 세계포럼 개최 공지를 함.

- 개최 장소와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국내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임을 통보. OECD측은 선정 완료시점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6월 말 경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OECD측은 대전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컨벤션시설 및 호텔 여건 등의 부족으로 후보에서 탈락되었음을 설명.

o 준비위원회 구성

- OECD측에 차관급 정부위원 및 민간 위원이 포함된 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임을 설명. 특히, 각 계 부처가 거국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OECD측은 한국 정부의 관심에 상당히 인상깊어했고, 의제 선정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특히 현재 OECD측에서도 준비 중인 scientific committee 또는 organising committee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 피력함.

※ OECD측은 동 committee와 관련한 진척 사항이 현재까진 없다고 함.

o 의제, 발표자 및 프로그램 관련

- OECD측은 의제 및 발표자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궁금

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 및 주요 초청자의 10%를 한국 측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또한 현재 관련된 인사 후보군을 list-up하고 있음을 알림.

-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발굴 중이며 세션별로 한국측 인사를 배치하는 안과 한국 (또는 아시아) 이슈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 세션을 구성하는 안 등을 제안함. 이에 대해 OECD측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며 한국의 단일 세션은 곤란하지만 아시아 이슈를 다루는 특별 세션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 OECD측은 3차 포럼의 형식도 2차 포럼의 형태를 거의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한 한 모든 이슈를 올려놓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제안.
- 아젠다의 구체적인 논의 및 선정은 OECD측이 venue 확인 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9월 즈음 만나 구체적으로 진척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교환

o 전시회

- OECD측은 3차 포럼과 연계하여 열리는 전시회에 총 70개 안팎의 기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한 장소 여건을 궁금해 함. 이에 대해 어떤 도시가 선택되더라도 7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될 수 있는 개별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함.
- 또한, 한국측 부스 및 전체적인 전시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청 GIS팀이 전시회 기획 등에 깊게 관여할 것임을 알림.

o 양해각서 체결 건

- 양 기관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urgent issue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draft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함.

※ 이미 OECD는 2차 포럼 당시 터키 정부와 'Partnership Agreement'를 맺고 이와 흡사한 형태의 협약

을 우리 청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동 협약은 한국정부와 OECD간에 이미 맺어진 협정으로 인해 적용 불가능하다는 외교부 의견을 받은바 있음. 세계포럼 준비와 관련해서는 MOU 또는 Arrangement 등과 같은 낮은 등급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OECD에게 재차 인지시킴.

- 이미 OECD통계위원회 기간 동안 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개최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메일 교환을 통해 체결해도 될 것으로 합의함.

o 홈페이지 관련

- 우리 청에서는 세계포럼 관련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으며 OECD측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 지에 대해 궁금해 함. 이에 대해, 초기에는 세계포럼의 개요, 홍보자료 등이 중심이 되며 포럼에 임박하여서는 온라인 등록 및 숙박 예약, 웹케스팅 등이 서비스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알림.
- 이에 대해 OECD는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으며 단,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OECD측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함. 이는 포럼 시작 바로 전까지도 프로그램 및 참석자가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OECD측이 직접 편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 OECD측은 최근 글로벌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www.oecd.org/progress)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함.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제작하는 홈페이지와의 연계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o 인력파견

- OECD측은 지난 2월 제기된 인력파견건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궁금해했으며 이에 대해 올해 8월부터 파견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세계포럼과는 분리된 것임을 명확히 함.
- 세계포럼 관련 인력파견의 시기 등에 대해 OECD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등은 상관없으나 가급적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는 지양한다고 함. 후보자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알림.

o 기타

- OECD측은 3차 포럼에 앞선 아시아회의를 내년 초 일본 교토에서 열기로 확정
- OECD측은 글로벌프로젝트에서 독일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측 대표가 통계 배경이 없어 무조건 반대하였으나 최근 교체되어 향후 호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 OECD측은 9월 이태리에서 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Training course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청 인사 1-2명을 추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음. OECD는 환영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음.
- 우리 청에서 추천한 3인의 Expert Group 인사에 대해서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미 글로벌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물어 한국 측 인사로부터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함.

<참조> 각 국 및 기관별 데이터시각화 참고 사이트

1. 국가별

- 네덜란드 : www.cbsinuwbuurt.nl
- 영국 : www.ons.gov.uk
- 캐나다 : test.balaton.org
- 독일 : www.gesis.org/en/zuma/index.htm
- 이탈리아 : mpba.fbk.eu/en/home
- 스웨덴 : ncva.itn.liu.se/?l=en

2. 국제기구

- IMF Data Mapper : www.imf.org/external/datamapper/index.php
- OECD Wikigender : www.wikigender.org

3. 유관 기관

- Gapmider : www.gapminder.org
- Knowledge Plex : www.kplex.org
- Mapping Worlds : www.mappingworlds.org
- SHOW : show.mappingworlds.com